

제 25 호

제 5 부활주일

1973. 5. 20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강 론】



「주일과 평화」

김 영 일 신부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들어가시어 “당신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하시었습니다. 구약 시대 안식일 다음날이면 지금의 주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 일요일을 당신의 날로 정하기 위해서 아담과 에와가 잃어버렸던 인간의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날로 부활을 택함으로 인류에게 최대의 즐거움을 주시고 이 즐거움을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평화가 있음을 알려 주시기 위해 “평화를 빕니다”하고 인사 하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본 뜻을 알아 주일에 미사 봉헌을 신자들에게 규율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미사나 영성체 직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신부가 병자성사를 위해 환자 집에 들어 갈 때에도 “이 집에 평화가 있어지이다”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개인의 마음이나 한가정에나 어떠한 단체일지라도 반드시 평화가 있어야만 머물게 됨을 확실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의 날이요 천 그리스도교 신자의 날이며 전 가정의 날인 주일은 반드시 평화를 누려야 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시었으니 그리스도를 찾는 자,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날을 알아 듣는 자에게는 반드시 평화가 머무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역시 “당신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씀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진실(진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잃어버린 길을 찾을 때 아니 즐거울 사람 없고,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면, 이 세가지를 보유했다거나, 누구에게 얻었다면 그 이상 평화로울 수 없고, 안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일은 이러한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뵈옵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느님께 자신과 자기의 예물을 바치는 날입니다. 누구든지 기구를 열심히 할때 보다 안정 되고 침착 하고 평화로울 때가 없을 것입니다.

주일은 자신과, 자기 예물과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봉헌하는 기도의 날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빌어 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육신의 노동까지도 피하는 날이기에 평온 하고 안전한 날입니다.

주일 미사를 거절하거나 등한히 하는 자들은 신자 생활을 하는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자신이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서학동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 **입당송** 새로운 노래를 주께 불러드려라. 또한 일들 당신이 하시었도다. 당신의 정의를 백성들 앞에서 밝히셨도다. 알렐루야.

□ **제1독서** (사도행전 9; 26-31, 성서 P.)
길에서 주님을 뵈은 일을 이야기 하다.

□ **창계송** ◎ 알렐루야.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내 서원을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 배부르게 먹으리이다. 주를 찾는 사람들이 당신을 기리며 “너희 마음 길이 살라” 말하리이다. ◎

□ **제2독서** (요한 1서 3; 18-24, 성서 P.547)

믿고 사랑하라는 것이 그분의 계명이다.

□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를 떠나지 말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나를 떠나지 않는 자들,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 **복음** (요한 15; 1-8, 성서 P.245)

내가 붙어 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 **신자들의 기도**

1. 평화의 주시여, 우리들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복(不睦)의 씨를 없애시어 가까운 이웃들에게서부터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사랑의 주시여, 우리로 하여금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사랑할 줄 알게 하소서. ◎

3. 구원의 주시여, 잘못을 뉘우치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용기를 주시어 악에 용감히 대항하도록 인도하여주소서. ◎

■ **맺음기도** 주여 비오니, 저희들의 조그마한 정성들을 모아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에 퍼는 일꾼을 찾고 길러 보겠다는 교구의 사제 양성 후원 사업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 아멘

□ **부활 감사송**

□ **영성체송**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내게 붙어 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 이 주간의 성경 ※

- 21(월) 독서 (사도행전 14: 5-17, 성서 P. 299)
복음 (요 한 14: 21-26, 성서 P. 244)
- 22(화) 독서 (사도행전 14: 18-27, 성서 P. 300)
복음 (요 한 14: 27-31, 성서 P. 245)
- 23(수) 독서 (사도행전 15: 1-6, 성서 P. 300)
복음 (요 한 15: 1-8, 성서 P. 245)
- 24(목) 독서 (사도행전 15: 7-21, 성서 P. 301)
복음 (요 한 15: 9-11, 성서 P. 246)
- 25(금) 독서 (사도행전 15: 22-31, 성서 P. 302)
복음 (요 한 15: 12-17, 성서 P. 246)
- 26(토) 독서 (사도행전 16: 1-10, 성서 P. 303)
복음 (요 한 15: 18-21, 성서 P. 246)

□성소문제□



사제 양성 후원회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성소 육성의 의무는 전 크리스찬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당하는 큰 고통중에 하나가 바로 성소 감소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요한 23세께서는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 문제는 교황이 날마다 걱정하고 있다. 성소야말로 교황 기도의 숨소리요, 그 영혼의 간절한 소망이다." (성소에 관한 제1차 국제대회 연설, 1961. 12. 16) 하고 근심하셨읍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 정의는 망각되었고 인간의 정신적 영신적 가치관마저 마비되어가는 현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필요에 응할 수 있는 사제의 수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더구나, 해마다 감소되는 사제 성소의 현황은 내일의 우리 교회를 결코 밝게만 내다 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이 과거보다 퇴보되었다거나 미래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해서 좌시 개탄만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과연 뜻이 있는 청소년들을 개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반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사제 없는 교회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제를 누구를 위한 누구의 사제냐 하는 문제는 자명한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오로께서 갈라디아 인들에게 보낸 서간을 소개합니다.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십시오. 꾸준히 계속하노라 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갈라디아 6.5~10) <계속>

□ 양지쪽 □



3시의 대합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집 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은
꽃피고 새우는 집 내집 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벗 나의 집 뿐이리.

밤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낭만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만 그리 되지 못하고 말았다. I시에서 거차를 바꿔 타야 했다. 3시가 되기까지는 한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는데 밤 공기가 그리 좋지 않아 잠깐만이라도 몸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이때 I역에서 보고 느낀 일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것들이었는데 그날이 어버이날이라서 그런지 달리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 전도의 달이요, 어버이 날이 있고, 가정주간이 설정되어 있는 이 5월은 성모의 달이기도 하다. 그런데 새벽 2~3시의 역 대합실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하다. 누렇게 뜬 얼굴의 여인네들이 은근하게(?) 속삭이는 유쾌 행위, 한 밤중인데도 출렁대며 소매깃을 잡아 끄는 소년들, 대합실 긴 의자에서 덮개도 없이 새우잠을 자는 꼬마들과 할머니, 술이 취해 게걸대며 오가는 사람을 붙잡고 시비를 벌이는 할아버지.....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 하기가 우리 일행도 어떤 할머니를 따라 잠깐 쉴 집을 찾았지만, 마침 어버이 날이라서 그런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어느 때고 불행의 그늘에서 사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 노력해서 이 사회에 하루 빨리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 위해서 힘써야겠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불행이 있는 곳에 사랑과 평화를 심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갑)

성모 성월의 필독서

비통의 어머니

오기순 신부 지음

성서와 성물은

성 바오로 서원

중앙성당역 (전화 07398)

※각종 양복. 양장지 도산매※

신우라사

서울은행 전주 지점 옆
(전화 02212 07071)
김병구(빈첸시오)

※ 농약. 씨앗. 농기구 ※

전북농약사

박태수(벨라도)

전동 3가 148. 전화 06090

매곡교 네거리에서 남부배차장으로 가는 길목
(오성주장 앞)

* 대화의광장

* 잔디밭



청소년 선도의 달

김 영 구 신부

(가)청년은 인생의 봄이다.

일년의 계획은 봄에있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다. 봄에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들 것이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지 않으면 그날 한일은 못한다. 젊은 시절을 일년으로 치면 봄이고, 하루로치면 아침이다. 그러나 봄은 꽃이 말발하고, 눈과 귀에 유혹이 많은때이다. 이목(耳目)의 향락을 쫓아가느냐, 부지런이 땅을 가느냐에 사람의 일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동과서로 흐르는 물이 그 거리는 불과 몇십 미터이지만, 나중에는 수십리의 간격이 생긴다. 이와같이 출발점에 있어서는 거리를 모르지만, 방향을 어디다가 잡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란 차이를 낳게 한다.

오늘 할수 있는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자. 싸다고해서 필요치 않는 물건은 사지 말자.

(나)꽃 피울줄 아는 청년이 되라.

「꽃 피울줄 모르는 봄이어서는 안된다. 별이 속삭이지 않는 하늘이어서도 안된다. 도리어 높은 이상에 불타는 청년이 되라」

젊은이는 교회의 씨이며, 원천이다 (전11장9; 121)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사 54: 4; 디모후2: 22)

(다)청년은 대지(大志)를 품어야한다.

청년된 자는 모름지기 자기를 1개의 벽돌, 한줌의 흙

으로 삼아, 사회의 대조성(大造成)에 기여(寄與)한다는 대지를 가지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자! 세계의 젊은이들이여! 20세에서 25세의 젊은이들 말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만족하지 말라. 세계와 그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들의 것이다. 언제나 쾌활한 청년, 순결하고 명랑한 영혼, 그것을 진정 가정과 사회에 있어서 그 얼마나 값진보물인가! 우리 회단에 「밤의 촛불: 일명 月見花」이라 불리우는 진기한 식물이 있다. 그 꽃은 낮에 햇빛을받아 그 내부 조직속에 그 빛을 저장해둔 것처럼 밤이되면, 엷은 빛을 꽃둘레에 발산시키기 때문에, 밤에 나방무리들이 꽃속의 꿀을 빨아먹을수가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상적 청년의 모습이다. 그들은 태양의 빛, 그리고 기쁨과 사랑을 몸에 발라, 자애와 덕이 넘쳐흐르는 자기 영혼에서 자기둘레에 선행의 향기를 발산 시킨다. 벗들이여! 가정에 있어서나, 밖에 나가서 모든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쾌활하게 대하라. 부모에게는 각별히 그 노고를 풀어 드리도록 하라. 여러분은 바람직한 태양의 빛, 노래하는 새 생명의 암흑을 비취주는 등불이 되라. (베드로 전5장5라)

(라) 청년들이여 큰 포부를 가지라.

청년들은 선택권을 즉 큰 포부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양양한 미래를 지향하여, 어떤 위대한 인간도 될수 있는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청년의 가슴에 끝없는 희망이 크게 부풀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전11: 9; 12:)

젊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 이날은 두번다시 밟지 않으리라. 때 있으면 공부에 힘들여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③3498)

21일 (월) 외국 문화 교실 (불어, 오후 5~6시)

22일 (화) 외국 문화교실 (독어)

24일 (목) 외국 문화 교실 (독어)

외국 문화 교실 (불어, 오후 5~6시)

25일 (금) 외국 문화 교실 (독어)

☆ 학생복 전문 ☆

금 성 양 복 점

김 경 조 (루수)

전주시 교동 2가 69번지(전동성당에서 오목대로 가는길-경찰학교 뒤)

* 축 부 활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교사동 1가 오거리동 동아여관앞 전화 ⑥6094

* 축 부 활 *

동남 샵프

T V
냉장고
선풍기

전주대리점

전 화 ②8121

여 요 셉(운창)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1. 성소 주일 사생 대회 입선자

특선-김영현(중앙, 6학년) 이선미(덕진, 2학년) 최혜숙(전동, 4학년)
가작-고순희(노송동, 6학년) 김덕환(중앙, 1학년) 김동훈(전동, 3학년) 노연옥(중앙, 5학년)
이정훈(서학동, 2학년) 조미현(전동, 1학년)

장려상-고민애, 박혜경, 이영식, 이선희(노송동) 주영란, 한금주(덕진), 김상진, 김성자, 박공석
장미현(북자), 김양이, 이남희, 최은남(서학동), 김명선, 박인식(전동), 이재구, 전인수,
최원경(중앙)

2. 기금 모금을 위한 1일 다실 (5월 27일 9~22시 가톨릭 센터 휴게실) 음악과 이야기로 꽃피우는 이
다실을 많이 찾아 주시죠. 행운권 추첨도 있습니다.

(중앙)

(전화 2651) 주임 신부 안복진
(3874) 사도 회장 김중순

- 1. 미사시간 일부 변경
주일 저녁 미사-오후 7시30분
2. 본당 신부님 가정 방문 일정
5. 21(월)-태평 1. 2가 5. 22(화)-중노송동
5. 23(수)-경원동 5. 24(목)-교사. 중앙동
3. 성모회 월례회-오늘 공식 미사후에 성모회 월례회
가 있어오니 성모회원 전원 참석을 바랍니다.
☆ 축 결혼 ☆ (5월 24일 11시)
신랑 박 용기 군 신부 김 순자(바울라) 양
□ 지난 주일 봉헌금 30,115원
성소 주일 특별 헌금 7,037원, 감사합니다.

(북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훈
사도 회장 조성호

- 1. 본당 신부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신부님의 병환 회복이 빨라 지심에 먼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2. 교무금 완납에 적극 협조합니다.
3. 교미시음 월례회 (오늘 오후 1시반, 전동).
□ 지난주 성미 3말 3되, 누계 143말 1되 5홉
지난 주일 봉헌금 13,499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이태영

- 1. 부녀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3. 6월 16일 견진 성사
희망자 등록 바랍니다.
4. 예비신자 등록 (수녀님께 등록하십시오)
□ 지난 주일 봉헌금 11,631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 1. 성모의 밤 (오늘 밤 8시)
신자들의 많은 참석 바람 (준비-목주, 초)
2. 교미씨음 월례회 (오늘 오후 1시반 전동)
레지오 마리에 간부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3. 사제 양성 후원 사업에 협조합니다
많이 가입하시고, 화비 불입은 신용조합에 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10,545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 1. 6월 9일에 견진 성사
희망자는 5월 27일까지 사무장님께 등록하십시오.
2.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가입서와 인감을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3. 부녀부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4. 유아 영세 (26일<토> 오후 8시)
5. 6월 3일공식 미사에 첫 영성체
이를 위한 교리반이 5월 21일부터 매일 오후 6시부
터 2주간 계속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5,507원
성소 주일 특별헌금 2,75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명선

- 1. 교미씨음 월례회 (오늘 오후 1시반, 유치원 2층)
각 P. 간부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2. 애령회 특별헌금
애령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합니다.
3. 6월 17일 (주일)에 견진 성사
해당되시는 분은 수녀님께 미리 등록하십시오
4. 주일학교 어린이 미사시간 변경(9시로)
11시미사를 9시로 앞당깁니다. 교리시간은 오전10시
에 그대로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주일학교 교리 교사 모집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하실분은 본당 신부
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협조 바랍니다.
6. 성당 환경 조성을 위한 꽃모종과 정원수 수집
7. 사랑의 일치를 위한 성모의 밤(오늘 밤 미사후)
준비-목주, 성가책, 기도서, 초,
개인별, 각신심단체별, 꽃다발봉헌
□ 지난 주일 봉헌금 26,185원
성소 주일 특별헌금 5,617원, 감사합니다

사제양성 후원 기금 예약 현황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entries like 김제, 남원, 대야, 북자, 서학동, 전동, 진중, 진안, 월명, 화산.

감사합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 양성 후원회

5월은 성모성월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